

## “지역사회 유입 차단·경제 활성화에 힘 모으자”

18일 아산 현장집무실 철수  
 19일 간 409회 7428명 방문  
 도, “아산정신 역사에 기록될 것  
 코로나19 종식까지 총력 대응”

아산 현장집무실 등은 지난달 29일 경찰인재개발원이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로 확정됨에 따라, 다음 날인 30일 양 지사가 인근 초사2동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갖고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설치했다.

충남도지사가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도정 역사에서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17일까지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에서는 회의 및 간담회 39회, 방문·접견 323회, 현안 보고 47회 등 총 409차례에 걸쳐 7428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의 등은 점심과 저녁시간 전후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생활시설과 양 지사 현장집무실이 설치된 아산을 전격 방문,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안을 들었다.

지난 11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산을 찾아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15~16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한 교민을 환송한 뒤 초사2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눈발이 날린 지난 16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퇴소하는 우한 교민들을 환송하고 있다.

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을 지키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충남도정은 앞장서 최선을 다했고, 이런 우리의 역할과 활동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 임시생활시설은 국가적 위기에 앞장섰던 초사2동 마을 주민과 아산시민의 포용정신, 상부상조의 정신을 우리 역사는 자랑스럽게 기록할 것이며, 아산 방문 릴레이운동에 동참했던 도민과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우애의 정신이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다음 달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 위축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 대책 추진에도 역량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사회재난과 041-635-3281

## 220만 염원 ‘충남 혁신도시’ 최종 관문 넘는다

20일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예정  
 충남도 “통과 위해 총력 다할 것”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20일 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

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

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다.

충남도는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건설정책과 041-635-4629

##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지속’

2000두 계획 중 25% 의뢰 중  
 추가 예산 확보해 서비스 확대  
 비용 무료...농가소득 한몫 기대



가량 분석 의뢰된 상태다.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도내 송아지 친자감정으로 한우 개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사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축산연구소는 향후 친자감정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축산기술연구소 041-635-7822

## 봉준호의 ‘백사리’와 충남혁신도시의 공통점

| 도정 톨아보기  
 두려움 승화한 ‘백사리 예술’  
 충남형 퍼스트펩킨 희생정신  
 충남혁신도시는 ‘용기의 발현’

“그는 세상의 모든 이를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他爲蒼生說過話)”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다가 중국당국의 탄압을 받았고, 결국 이 질병으로 숨진 중국인 의사 리원량(34)의 유서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코로나19 공포가 혐오와 차별로 치닫던 때, 한 아산시민의 ‘우한교민 환영합니다’라며 ‘위 아(We are) 아산’ 운동을 전개한 이가 있었다. 이들의 용기는 부끄러움을 흔들고 이성을 깨웠다.

리원량과 ‘아산’은 한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봉준호 감독의 ‘백사리’라는 ‘그’만의 연출기법은 두려움을 승화한 용기다. ‘백사리’는 ‘고음에서 잡소리가 섞이는 경우를 통속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영화 ‘괴물’에서 변희봉이 송강호에게 비장하게 ‘마지막 한 발’이라며 권총을 건네주는 장면, 사실은 이미 비어 있었다는 걸 알고 황당해하는 두 사람. 영화 ‘설국열차’에서 치열한 도끼전투 중 생선을 밟고 넘어지는 크리스 에반스. 팽배한 긴장 속에서 의도적한 ‘백사리 예술’은 스틸을 증폭하거나 긴장을 순간 무장 해제하는 극적 효과를 만든다.

충남도는 ‘퍼스트 펩킨’이라는 용

기다. 모두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펩킨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드는 희생적 용기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에 퍼스트펩킨을 자처해 왔다. 전국최초 충남형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비롯한 인산부 민원 우선창구 설치,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앞장섰다.

용기와 저력으로 최종 혁신도시 지정도 바짝 다가섰다. 국회 법사위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혁신도시 지정은 오랜 충남도민의 염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이자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다. 코로나19에 맞선 충남도민의 두려움을 따듯한 용기로 극복하며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처럼.

/이찬선 chansun21@korea.kr



# 백제문화제 2022년부터 격년제 개최

2021년 국제 규모 대백제전 개최 이후 공주·부여서 번갈아 진행 올해 행사 9월 26일부터 9일간



지난해 백제문화제에서 펼쳐진 백제불꽃놀이 행사 장면

백제문화추진위원회는 2021년 제67회 백제문화제를 국제행사 규모인 '대백제전'으로 치르고, 2022년 제68회 백제문화제부터는 공주시와 부여군이 격년제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대백제전' 및 '격년제' 개최는 제기된 문제점(예산·인력 비효율, 콘텐츠 부재 및 내용 중복, 지역주민 재정·시간적 피로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제54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대백제전 개최 및 격년제' 개최방안과 관련 ▲2020년까지 현행 통합 개최 유지 ▲2021년 제67회

합동 대백제전 개최 ▲2022년 제68회부터 격년제 개최 ▲대백제전 및 격년제 개최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제66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란 주제로 개최하기로 했다. ▲고

대 동아시아의 문화강국 백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의 의미와 가치를 재각인 시키고, ▲2021년 대백제전 ▲2022년 격년제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행사기간 9일 중 휴일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총 7일로, 백제문화제 방문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041-635-6991

## 도정만평



설인호

## 부동산 거래 가격...30일 내 신고해야

미신고 500만·허위신고 3000만 과태료 부과 등 시장 교란 대처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위 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공동으로 거래 신고 명세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보다 적시성 있는 부동산실거래 정보 제공과 시장 교란행위 차단효과를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2

## '문화유산 보존·관리' 시·군과 협력 시·군 문화유산 관련 회의 개최

충남도는 지난 20일 아산시청 회의실에서 '2020년 시·군 문화유산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도 문화유산 주요 업무를 공유하고, 도와 시·군 간 소통 강화 및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및 도내 문화·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권 개발 사업 등 올해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또 향교서원·고택종갓집 등 문화재 체험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발굴 전략을 발표하고, 각 시·군 협조·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논산 돈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정부 합동평가 5년 연속 가등급 획득 등 도의 문화재 관리 업무 성과를 공유하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지사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등 변경된 문화유산 정책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유산과 041-635-3916

## 부자 어촌마을 신비의 섬

충남이 품은 섬이야기

④보령 장고도

제주 해녀들이 즐겨 찾는 곳 200년 전통 등바루놀이 전해

장고도는 보령시 오천면에 딸린 섬이다. 면적 1.5km<sup>2</sup>, 산 높이 41m, 해안선 길이 8.6km, 인구는 136가구 288명이다. 장고도는 장고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사람들은 장고도를 '충남의 제주도'나 '황금의 섬'이니 하는 색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장고도는 충남에서 해삼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섬이다. 수심이 적당한 곳으로 수많은 해삼들이 돌들의 틈 사이에서 자란다. 여름만 되면 제주도 해녀들이 원정을 와서 해삼을 채취한다. 잡은 해삼은 6대4 정도로 나누는데 해마다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가구당 600~1000만원 정도 된다.

충남도청에서 주민들이 수익 사업으로 해삼 양식장을 만들어 주고 관리한 덕분이다.

최근 섬에서 나는 수익이 많아지면서 고향을 등진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다시 들어와 산다. 그래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분교도 지금은 학생이 12명으로 늘었다.

대머리선착장에서 해안탐방로 1구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명장섬해수욕장까지는 1.25km란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관광객들은 명장해수욕장까지 산책할 수 있다. 명장해수욕장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장섬이 있는데 아주 작은 네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자녀들의 체험 학습과 여행을 겸하여 가족들이 오면 더없이 좋은 곳이다. 명장해수욕

장에서 물이 빠지면 명장섬까지 바닷길이 열려 직접 거기까지 걸어볼 수도 있다.

장고도가 자랑하는 문화전통은 2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등바루놀이이다. 매년 4월 초에 벌이는 '등바루놀이'는 장고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처녀들의 집단놀이로 원래는 마을 처녀들이 하루 전날 바닷가에 둥근 돌담(등바루)을 쌓는데, 돌담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다 쪽을 향해 넓이 1m 정도를 터놓는다.

놀이 날이 되면 처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조개 등 어물잡기 경합을 벌이고 점심때가 되면 이 긴 편과 진편을 가린 후 돌담 안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하는 일종의 성년식 성격의 놀이다.

장고도가 등바루놀이는 지난 1981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 21회 전국민속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고도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민박집도 운영하고 있다. 섬에는 젓갈을 담아 놓은 젓갈 통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봄에는 까나리, 여름에는 새우를 잡아 젓갈을 담는 것이 가장 큰 수입원이라는 사실을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다. 젓갈 통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은 참으로 진풍경이다.

섬을 다니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민박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빼고 일반 주민들은 외지 사람들에게 그다지 친절할 편이 아니었다. 외지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속내를 감추면서까지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재언 목포과학대학교 교수



장고도 전경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급

14일 이상 격리, 유급휴가 미대상 4인 가구 최대 123만 원 지원

충남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다.

또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입원 환자의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발부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5



# 위축된 지역경제... 맞춤형 지원으로 극복 돕는다

##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지난 연말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이후, 충남도는 2달 여 간 숨가쁜 대응을 펼쳐왔다. 지난달 17일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도내 전파에 대처하는 한편,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지정되자 공장 아산 현장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19일간 현장상황을 파악해 왔다. 그러나 우한 교민의 무사귀환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산 지역경제 위축과 도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 만큼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놴다.

##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6624억 등 소상공인·중소엔 금융지원 확대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아산 현장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



지난 16일 격리해제된 교민을 환송하는 초사2동 주민들의 모습.

금 6624억 원을 상반기 내 집중 투입한다. 이 중 1039억 원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자금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할 5500억 원 중 3570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또 추가로 430억 원을 조성, 저금리 대출과 특례보증 등을 통해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지역 봉쇄에 따른 대금 결제 및 물품 인도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3100억 원 중 2015억 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여기에 추가 조성한 609억 원을 업체당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

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일부터 소상공인 200억 원, 중소기업 3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긴급 지원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는 지난해 122억 원에서 올해 41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 수출위기극복협의회 구성하고

## 車부품·디스플레이 R&D 지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수출 기업을 위해서는 ▲수출위기극복협의

회 구성·운영 ▲수출기업 피해 사례 조사 접수 창구 운영 ▲도내 수출기업 현장 방문 실시 등을 통해 피해를 파악하고, 사례별 지원 방안을 찾는다.

또 인도나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통상국 다각화로 수출액의 30%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 중국 의존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축에 대응해 ▲기업 애로 접수창구 설치·운영 ▲도-충남 테크노파크 간 대응 대책반 테스크포스(TF) 가동,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지원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동차부품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모델을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부품 분야 기술역량 강화 ▲부품기업 거래선 다각화를 위한 세계화 지원 사업 추진 ▲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 사업 등을 추진,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한다.

## 상반기 3조 8000억 신속 집행

## 고용위축 대비 일자리 중점 발굴

충남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차단

하기 위해 상반기 3조 8020억 원의 도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납부금 분납, 지방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사태 장기화 시 실업 발생 증가 등 고용 위축에 대비해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추가 발굴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박람회 등 현장 맞춤형 구인구직 사업을 확대하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도 펴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9개반 10개 부서, 5개 기관으로 '지역경제 상황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중소 수출기업과 소재·장비·부품기업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쇼핑과 관광 등 민간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 지원 정책, 지역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 “新남방 인도·베트남 시장, 중소수출기업 진출 가교될 것”

##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개설

충남도는 수출 전문인력 및 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 두 곳에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해 본격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인도는 유망 신흥시장으로 조기 선점의 필요성에 따라, 베트남은 아세안 시장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판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5월 개소를 목표로 윤곽을 갖춰가고 있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소개한다.

## 도내 중소수출기업 동반자로

## 상담·계약·관리 주기별 지원

해외 통상사무소 개소는 지난 2018년 7월,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취임 직후 '인도에 대한 경제교류 및 통상 정책방향 연구검토' 지시를 계기로 본격 검토가 시작됐다. 이후 2018년 12월 충청남도 중소기업 통상진흥계획 수립, 2019년 1월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계획 관련 실무회의, 2019년 4월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준비를 위한 해외현지조사, 2019년 5월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인도와 베트남 두 곳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장을 채용해 현지 파견한 상태다.

해외통상사무소는 '활기찬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중소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란 비전 아래, 수출 기

<b>비전</b>	활기찬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중소수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b>목표</b>	해외상담, 계약, 관리 등 전주기적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고
<b>추진방향</b>	안정화 단계→역량강화 단계→사업확대 단계
<b>구분</b>	<b>주요내용</b>
안정화 단계(2020년)	-상반기) 통상사무소 개소 및 운영 안정화 -하반기)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바이어 DB 확보
역량강화 단계(2021~2023년)	-통상사무소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확대 -독자적인 통상사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확대 단계(2024년 이후)	-해외마케팅 사업 및 교류협력 분야 등 기타 분야로 확대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및 운영

업의 해외상담·계약·관리 등 전주기적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전략 및 신흥유망시장 등 2개소 시범설치 운영을 통해 초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충남경제진흥원-해외통상사무소 간 관리체계 정착을 통해 기반을 다진다. 2024년부터는 중국 등지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며, 통상환경 추이를 살피고 사무소 운영성과를 분석하는 등 전향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하노이, 베트남 新투자지역 부상 구르가온, 한국 기관·기업 진출 늘

현재 개소한 두 곳의 해외통상사무소는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구르가온 지역에 입지해 있다.

하노이는 세계 기업의 진출이 포화상태인 호치민과 달리 새롭게 경제도시로 부상하는 곳으로, 베트남

정부의 남북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급성장 중이다. 이에 기업들이 직접 바이어와 접촉하기보다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내 한국기업 역시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에 57.2%가량이 진출해 있는데, 충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 개소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을 선점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인도의 구르가온은 뉴델리의 서남쪽 위성도시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설치돼 운영 중인 곳이다. 또 뭄바이의 고물가와 열악한 생활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편이라 국내 진출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네트워크 형성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 곳의 사무소에는 각각 소장 1명씩이 채용돼 파견 중이며, 다음 달까지 사무소별 3명의 현지인 직원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력이 충원되면 오는 5월 정식 개소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해외통상

사무소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내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격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 상시 상담·바이어발굴 지원

## 전문전시회 단체참가 추진 등

올 한 해 추진될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요 사업은 ▲도내 수출 준비 및 초보기업 대상 중소기업 맞춤 지원 ▲바이어 발굴 및 지원 ▲전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등이다.

먼저 도내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과 인도 진출 및 수출 관련 맞춤형 상담을 상시 지원한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수출 준비기업이나 초보기업을 위해 베트남·인도 시장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바이어를 발굴하고, 이들을 도내 기업과 연결함으로

써 원활한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바이어 발굴 및 지원은 도내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 이뤄진다. 해외통상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를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도내 기업과 연결하고, 매칭된 바이어와 거래 협상을 돕거나 바이어의 신뢰도 확인 등 밀착 지원을 펼친다. 또 주요제품의 시장성 평가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인도 뭄바이(9월 28일~29일)와 베트남 호치민(11월 18일~21일)에서 개최될 전문전시회에 참여할 10개사를 선정, 국가별 5개사의 참가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도내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연간 총 수출액이 2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업체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를 100% 지원하고, 전시품 편도 해상운송료와 현지 통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해외통상사무소 개설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밀착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현장에서 충남도의 신뢰도 제고와 도내 기업의 바이어 발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시장 및 바이어 정보 공유로 수출 리스크를 줄이도록 돕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0

/손유진 syj0319@korea.kr

# 5대 째 이어지는 장인정신...전통 옹기 '맥' 잇는다

## 소상공인의 희망, 기업승계기업

### ③홍성 '갈산토기'

잣물 발효 등 전통방식 고수  
옹기체험, 카페, 족욕장 운영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파”



방춘웅 선생이 전통방식으로 옹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갈산토기 제공

갈산토기(대표 방춘웅)가 위치해 있는 갈산면 동성리에는 현재 2개의 옹기공방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옹기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옹기가 흔하던 시대에는 다섯 개 이상의 옹기공방이 모여 있었지만 7·80년대의 플라스틱 붐에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해 지금은 두 개의 공방이 옹기마을의 명맥을 잇고 있다.

갈산토기의 주인이자 옹기 명인인 방춘웅 선생은 서산 운산면에서 태어나 운산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아버지에서부터 옹기 만드는 일을 배웠다.

그 시절에는 운산면에도 옹기마을이 있어 옹기를 파는 장도 정기적으로 섰다고 한다. 서산이나 광천에서는 예부터 새우젓을 옹기에 담아 숙

성시켰기에 그에 따른 옹기수요도 엄청났던 것이다.

고향을 떠나 6년간 파주에서 수원으로, 다시 안성으로 작업장을 옮기며 옹기작업을 이어오던 방 선생은 1980년에 질 좋은 옹기토가 생산되는 고향인 갈산면 동성리에 터를 잡았다. 이후 옹기토를 직접 토굴해 배합

하고 잣물도 6개월 이상 숙성시키는 등 전통적인 작업방식을 고수하며 40년 가까이 옹기작업을 이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부산물로 2005년도에 노동부로부터 기능 전승자로 선정됐고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대전에 참가해 여러 차례의 입선과 공예품 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2008

년 2월에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8-1호로 등록됐다.

전통옹기는 오로지 사람의 손을 거쳐 제작된다. 안공구레, 방망이, 수레, 도개, 물가죽 등의 완성된 옹기는 잣물을 입혀 문양을 그리고는 전통가마에서 구워진다. 기계식 가마에 나무가 아닌 가스를 때서 만들면 일손도 덜 들고 그릇이 깨질 일도 없다. 하지만 공기를 통하게 해 장맛을 깊고 진하게 해주는 미세한 숨구멍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천연의 나무만한 재료가 없다. 작업능률이 좋을 때는 일 년에 서너 번 전통가마에 불을 지피지만 요즘에는 일 년에 한번 정도다. 하지만 갈산토기 사람들은 몸이 힘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전통방식을 버릴 수는 없다고 한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낸 옹기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산토기의 모습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옹기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공방에 체험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 현재는 대규모의 전통 가마와 최신식 가스 가마를 고루 갖춘 널찍한 옹기공방 주변으

로 체험공방, 족욕장, 카페 등을 갖춘 상태다.

1년에 6000여명에 가까운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갈산토기의 옹기체험은 인기다. 2001년 일찌감치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 꾸준히 홍보에 나선 결과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끈 것은 방 선생의 일을 도와 옹기를 전수 중인 아들 방유준(43) 씨와 딸 방유정(52) 씨의 도움이 컸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방유정 씨는 전통옹기의 우수성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숙박을 구상하고 있다. 전통의 방식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이 돋보인다.

방유정 씨는 “옹기에 발효시킨 건강음식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휴먼세 나는 공간, 미술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곳에 며칠씩 머물며 자연스레 옹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의 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생명의 그릇으로 불리는 옹기. 5대째 내려온 고집스런 장인정신으로 한국 전통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혜동 khdf1226@korea.kr

## 중부물류센터, ‘소통협력공간’ 재도약

3년간 60억 투입해 새 단장 후  
‘충남혁신상회’로 탈바꿈 기대  
‘주민주도 지역혁신 거점’ 거듭나

천안시에 위치한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중부물류센터)가 도민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인 ‘충남혁신상회’로 새롭게 단장한다. <사진>

만성 적자로 애물단지 오명을 면치 못했던 중부물류센터가 지역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 선도모델로 탈바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서 중부물류센터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 3년간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스페인 소도시 발바오 ‘사회혁신파크 실험 모델’ 및 ‘서울혁신파크’처럼 지역민, 시민단체, 청년 등의 참여 속에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실현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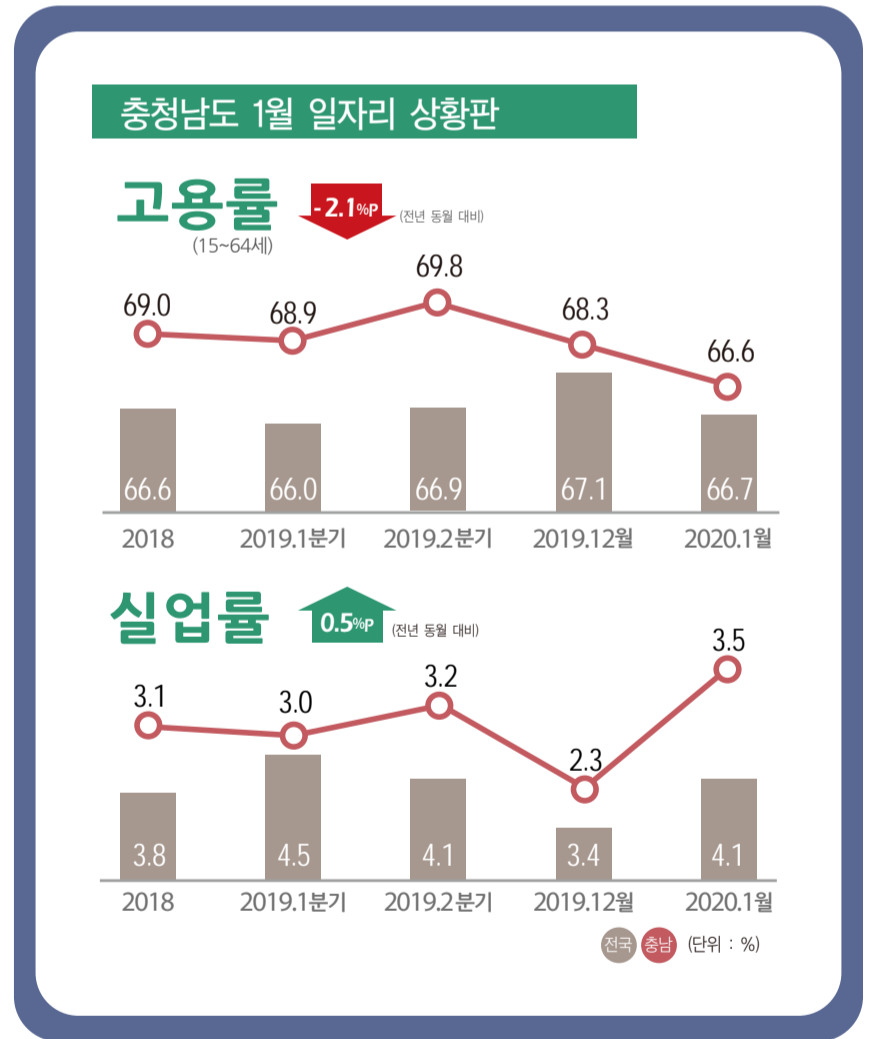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130억 원(국비 60억, 지방비 70억)이 투입된다. 도는 2022년까지 중부물류센터 공간(2~3층) 일부를 리모델링해 ‘충남혁신상회’로 간판을 바꾼다.

이곳에서는 공동체·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규약을 통해 소통·협업하면서 청년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등이 선순환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공간을 비롯한 소통·협업(코어킹) 및 레지던시 공간, 로컬푸드 오픈마켓 등의 다양한 아이디

어를 실험 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1999년 천안시 성거읍에 들어선 중부물류센터는 국비 278억 원 등 519억 원이 투입됐다. 이후 적자운영,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인수를 찾지 못했다.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은 강원 춘천·전북 전주(2018년 선정), 제주·대전(2019년 선정)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 ‘제3기 스타기업’ 발굴한다 3월 9일까지 충남TP로 접수

충남도는 내달 9일까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선도할 ‘제3기 충남 스타 기업’을 모집한다. 충남 스타기업 육성은 기업과 혁신기관이 공동으로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자생적 성장역량을 축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5개사를 선정해 2022년까지 매년 성장 잠재력과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성장컨설팅 지원 등 전용지원 프로그램(연간 4000만 원 내외)과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성공패키지사업’(연간 2000만 원 내외)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가 상시로 성장 전략 추진상의 기술적 주요현안 및 애

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이 우수한 스타기업은 ‘21년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연 2억 원 내외의 상용화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기업 신청자격은 국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최근 3년간(‘17~19년)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 9개중 2개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육성과 041-635-3926

## 기업 피해 최소화...‘수출위기극복협’ 가동

중화권 수출액 비중 45.9%  
도·유관기관·수출중기 맞손  
코로나 종료까지 수시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지난 14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김석필 도 경제실장을 비롯한 수출유관기관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 ‘수출위기극복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충남 수출액 가운데,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중국 29%, 홍콩 16.5%)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 피해 기업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현장의 피해 사례 분석 ▲중국 추진예정 수출지원

사업 재검토 ▲중화권 이외의 신규시장 발굴 ▲자금문제 기업지원 등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기업 애로와 현장 고견을 들어보고자 협의회를 구성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지원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위기대처 능력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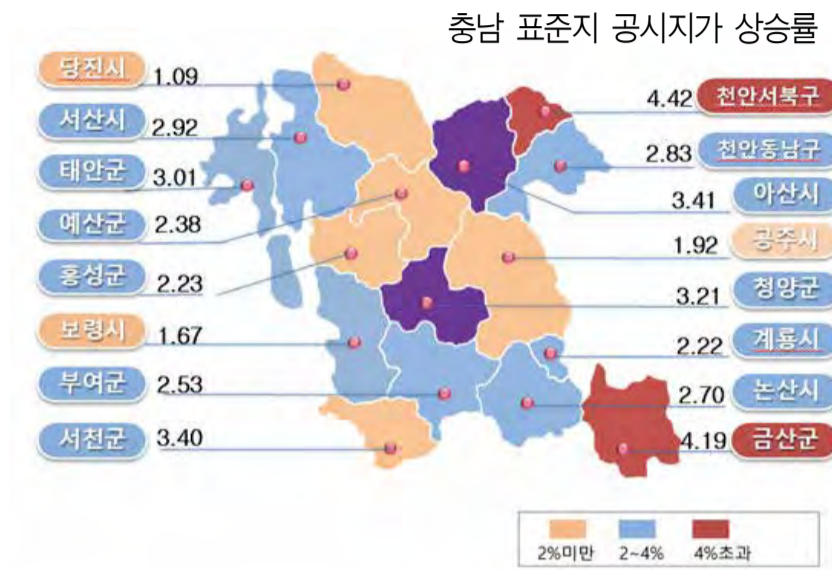


# 도내 표준지 땅값, 어디서 얼마나 올랐나?

평균 공시지가 288% 상승  
천안 동남구 상업용지 '최고가'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재심의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도가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614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88%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79%보다 0.91%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6.33%에 비해서는 3.45%p 낮은 수준



이다. 시·군별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442%로 가장 많이

올랐다. 도는 불당지구와 성성지구에 신규 상권과 배후지가 조성된 데다,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가시화

돼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과 대전 인근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4.19%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3.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는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 제조업 침체로 1.09% 상승,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당 10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자연림으로, 1㎡당 37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 신청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도는 향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토지관리과 041-635-4791

##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절실

도내 의료원 필요 간호사 781명  
현원 642명 불과, 인력난 지속  
학과 신설로 인재 직접 육성 필요

충남도 4개 의료원이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교육부에 의료법 일부 개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지난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공주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혁신사업 권역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간호사들의

도시권 대형병원 근무 선호 등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방 의료원들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라며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 등 충남도 4개 의료원에는 1286개 병상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간호사는 781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642명으로 129명(16.5%)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원 간호인력 부족은 근무여건이나 생활 편의 문제 등으로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는 또 의료원 근무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잦은 이직이라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4개 의료원 간호사 평균 재직 기간은 54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지난해 7월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고, 대학과 지자체, 교육청, 기업, 협업기관 등 모든 혁신주체들의 협력을 높여 지역 상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법무담당관 041-635-2142

## 충남신보-국민은행 위기 극복 ‘한뜻’

코로나19 피해기업 돕기 위해  
300억 원 규모 통큰 혜택 마련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20일 국민은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은행 출연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업무협약에 따라 2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3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재단은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이내, 보증 한도사정 완화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95

전통 문화예술 LA서 선배  
내포영산대재보존회 공연 개최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 영산대재 보유자인 보명스님과 법상스님을 비롯한 민족 예술가 16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준 높은 전통 예술 공연을 펼친다. 도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21일 오후 7시 미국 LA한국교육원에서 천상의 소리향연이 주최하고, 내포영산대재보

존회가 주관하는 ‘천상의 소리향연’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LA국악원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교민들이 고국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 예술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연은 ▲종성(보명스님) ▲태평무(장태연 군산대 교수) ▲회심곡(김진희 경기민요 이수자) ▲나비춤(강향란 남사당놀이 이수자) ▲가야금산조(조정아 단국대교수) 등 다양한 춤과 음

악으로 구성됐다. 보명스님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해외 교민들에게 민족 문화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충청 고유의 소리와 춤사위의 매력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무형문화재 제40호인 내포 영산대재는 예산 법륜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불교 의례로,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해 공연·시연 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하는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유산과 041-635-3914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국민은행이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통주에서 지역민의 성공 가능성과 의지를 재확인하다

2020년 충남연구원  
현장이야기  
④충남전통주연구회

스토리텔링 더한 마케팅 피하고  
인허가·위생 규제 완화 모색

독일하면 맥주가, 영국하면 위스키가, 프랑스하면 와인, 중국하면 고량주가, 일본하면 사케가 해당 국가의 대표적 전통주로 연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주는 무엇일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주로 소주와 막걸리라고 답하겠지만,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와 공장식 막걸리를 우리나라의 전통주로 소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전통주의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만의 전통적 방식으로 제조되는 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시는 대부분의 술은 제조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다행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생활 주변에서 우리 전통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작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공식 만찬주로 우리 전통주가 사용되었고, 이 전통주는 2018년 평창 동계패

럴림픽 개막행사에도 등장했다. 이 전통주는 우리의 쌀을 주원료로 만든 청주이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전통주가 있지만, 대부분 쌀을 주원료로 한 청주라는 공통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전통주의 다양한 재료, 다양한 가공방법은 세계의 어떤 술과도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인 쌀을 사용한 주조는 체질에 맞고 자연친화적이며 음주에 따른 건강을 덜 해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 전통주 활성화의 필요성과 정책 수요 증대에

따른 제반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수년째 꾸준히 현장견학 및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에 설치)에 ‘전통주 기업 잇기 프로젝트’ 등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충남연구원의 전통주연구회는 이론적 연구와 현장의 실천을 접목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전통주를 직접 빚는 지역민들이 참여해 실질적 도움을 받는다. 연구회의 성과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충남전통주연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이 실제 양조장을 설립하고, 전통주를 통해 소득

을 창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주 양조장 설립은 다른 지역민들에게 성공의 가능성과 스스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도내에서 전통주 양조장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통주류의 기능과 유용성 개발 및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마케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복잡한 인허가와 과도한 위생 규제 등 기존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충남의 전통주 산업은 보다 대중화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도 증가할 것이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경제 살리기’...17개 시·도 맞손

## 짧지만 불꽃같은 강렬한 삶

### ‘코로나19 대응’ 공동입장문 채택 지역사회 감염 따른 경제 위축 대비 “중기·소상공 지원 확대” 약속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각 시·도 영상회의실에서 영상을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들이 보여 준 포용력과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추가로 들어온 교민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경기도 이전

서 따뜻한 동포애로 풀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범정부 지원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지역의 산업·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경제적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 빨리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와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시·도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만 아니라 ▲시·도 간 방역물품 공급 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한 교민 임시수용시설이 있는 아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운동을 소개하며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3

###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 ③서산 윤곤강

#### 1931년 ‘넷성터에서’ 데뷔

#### 퇴폐적 정서→전통적 정서로

#### 카프·옥중생활이 무력 허탈감으로

#### 우울한 정서로 표현한 삶의 고통

불같이 살다가 불꽃처럼 스러져간 시인 윤곤강! (사진) 본명은 봉원(朋遠)이고, 아호는 곤강(崑崗)이다. 1911년 서산의 대지주 아들로 태어나 한학을 배우던 그는 14세 때 상경,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해화전문학교를 중퇴하였다.

1930년 일본 센슈우대학에 입학해 <시인춘추> 동인으로 활동하던 중 1931년 <비판>에 ‘넷 성터에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1933년 귀국한 후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며 비평 활동에도 나서더니, 1934년 제2차 KAPF(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연루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당진으로 낙향하였다가 다시 상경해 <대지>, <만가>, <동물 시집>, <빙화(氷華)> 등의 시집을 내며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초기 퇴폐적 정서의 시를 쓰더니 해방 후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시적세계로 전향하며 동인지 <시학>을 주도했다.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시집 <피리>, <살어리>를 펴냈다. 또한 시론집 <시와 진실>을 통해 한국 고유의 시체(詩體)를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 척추염과 신경쇠약을 얻게 되고, 많은 문학인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1950년 서울 종로구 화동에서 39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문학인이다.



사후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에 안장되었으며 1993년 서산문화회관 옆에 시비가 조성되고 대표

시 ‘나비’가 음각되었다. 묘소 앞 시비에도 시 ‘피리’ 일부분이 새겨져 있다.

밤마다 피리를 불며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그 소리가 온 누리에 퍼져 떠나간 임의 가슴 속에 달기를 소망했던 윤곤강.

그는 자연이나 인생보다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울한 정서로 노래했다. 카프의 영향과 옥중생활이 그에게 허탈과 무력감으로 다가섰으리라.

우리에게 만일 꿈이 없고 눈물이 항상 말라 있다면, 해골 같은 이 누리는 얼마나 슬픈 저승일 것이냐? ‘시’를 마음 할 때, 마음은 짧은 꿈에 살고, 그림을 볼 때 마음은 향긋한 맛에 취하고, 노래를 들을 때 마음은 맑은 물처럼 깨끗하여진다.

그가 작고하기 전 펴낸 시론집 <시와 진실> 머리말의 일부이다.

윤곤강, 그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일까? 단지 서산에서 태어났기에, 당진에 숨결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그를 기리는 것일까? 아니리라. ‘어두운 골목길’ 이거나 ‘길은 있어도 길은 없다’ 외치며 식민지 현실에 맞서고, 고향이라는 친밀한 공간속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내면의 반성을 드러내며 고향의식을 노래한, 1930년대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이기 때문이리라.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 신품종 딸기 ‘하이베리’ 상품성은

### 선행 대비 당도·경도 향상 시장 평가로 경쟁력 키워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 ‘하이베리’를 선보였다. 하이베리의 시장 개척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번 시장 평가에는 중도매

인, 경매사 등 청과 유통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시장 평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이베리 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베리는 지난 2018년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으로, 선행 품종보다 당

도·경도가 우수하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하이베리는 외관이 우수하며 선행보다 단단해 상품성이 높고,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도 농업기술원 장현동 연구사는 “유망 신품종을 전문가에게 미리 알리고,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충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091

### 농심 접하고 창의력 키우는 농기원 ‘어린이농업교실’ 인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어린이들이 농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농업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농업교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을 접할 수 있도록 흙 체험장과 농촌 체험장으로 구성했다. 흙 체험장에서는 항공 가공된 황토볼, 모래, 참흙(황토) 등을 활용해 창의력과 자연 친화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들기 놀이를 진행한다. 농촌 체험장에서는 ▲전통 농기구를 통해 농업의 역사를 배우는 이해의 장

▲첨단기기를 활용해 현대 농촌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 ▲한미경·포토존을 통해 농촌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는 감동의 장을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운영하는 어린이농업교실은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 041-635-6187

### 간추린 도정



#### 인면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억 원을 투입, 인면읍 정당리 일원 150ha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방제를 실시한다. 이는 2019년 3월 인면읍 정당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한 이후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통해 추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항공예찰과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지상예찰로 감염목을 조기 발견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제시기에 맞춰 예방나무주사 등 철저한 방제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인 인면송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280

#### 계룡건설 성금 3000만 원 쾌척

계룡건설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계룡건설의 이번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종 복지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지난 2005년부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나라사랑보금자리 집수리 지원 사업, 포항 지진피해 돕기 성금 등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룡건설과 같은 기업체의 숭선수범이 나눔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라며 “기탁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7

#### 전통시장 등 방역물품비 지원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한

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사전에 필요한 방역물품 소요량을 긴급히 파악, 이를 토대로 예비비 3억 4000만 원(시·군 50%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상인에게는 방역 마스크를 공급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이용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7

####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 김혜중 씨 선출



제37대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김혜중(62·여)(사진)씨가 선출됐다.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논산 출신으로,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여성 권익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충청남도여성대회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 ‘구내식당 휴무제’로 힘 보탠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 외부 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도는 구내식당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부서별로 매달 1회 직원 간 화합·소통하는 ‘직원 소통의 날’을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예견했다. 도 관계자는 “성과 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조기 집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탬 것”이라며 “상생을 위

한 이번 조치가 지역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과 041-635-3542

#### 중소기업 지원 안내 책자 발간

충남도는 ‘2020년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책자를 발간, 일선 시군 및 해당 사업장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는 도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발간됐다. 주요 내용은 10개 분야 9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자금·금융분야 9개 사업 ▲판로·수출분야 29개 사업 ▲고용·인력분야 4개 사업 ▲창업·벤처투자분야 9개 사업 ▲교육·컨설팅분야 3개 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R&D)·사업화분야 13개 사업 등이다. 또 ▲특허·인증분야 3개 사업 ▲기반시설·산업용지분야 1개 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1인)분야 12개 사업 ▲기업인 사기진작 및 기타분야 8개 사업의 내용이 실려 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0



# 휴일 육아도 걱정 No...아이키움뜰 운영 시간 늘었다

주말·공휴일 9-18시 주간 보육  
반값 이용료...양육 부담 낮춰  
3월, 키움노리 토요일 주간까지  
워킹맘 장난감·도서 대여 '편리'

#작년까지는 야간제 이용 금액이 4000원이라 주간에 비해 부담이 커서 2019 연말 설문지 조사에 비용에 대한 얘기를 적었습니다. 그 의견이 반영된 건지, 올해부터 2000원으로 내리고 주말 이용도 가능해서 훨씬 마음 편하게 맡기게 됐습니다. 또 독박육아를 하는 저에게 주말 오픈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OO 엄마 드림>

#요즘 같은 시기에 키즈카페 가기도 꺼려졌는데, 야간과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음 이용해 보니 참 좋았어요. 3시간정도 이용했는데, 아이가 재미있었는지 키움뜰에서 놀았던 일들을 조

## 24시간제 보육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주간, 야간에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 이용대상

주간시간제보육	6개월 ~ 36개월
야간시간제보육	6개월 ~ 만 5세 이하 아동 (동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아)

## 이용시간 및 보육료

주간시간제보육 이용시간	월~금, 9시~18시 보육료 시간당 1천원
야간시간제보육 이용시간	월~금, 18시~다음날 9시 (단, 금요일은 24시까지) 보육료 시간당 2천원
주말·공휴일 주간 시간제보육 이용시간	휴일, 9시~18시 보육료 시간당 2천원

\*이용안내 충남아이키움뜰 홈페이지 <http://cnicare.or.kr/>

잘조잘 얘기를 해주니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엄마 드림>

최근 충남아이키움뜰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 야간 보육을 이용한 엄마들의 후기도.

충남도는 올해부터 긴급하게 아이

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 수요를 고려해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간 시간제를 추가로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는 명절(설·추석)을 제외한 주말·공휴일 등 휴일에 주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야간 및 휴일 주간 이용료를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해 양육자의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 야근,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주·야간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충남아이키움뜰은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연말까지 주간 시간제 338명, 야간 시간제 153명 등 총 491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용 시간은 주간 8526시간, 야간

287시간으로 총 8813시간이다.

또 충남아이키움뜰이 지난해 실시한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은 총 5회 1208명이 참여했고, 주중 운영하는 키움노리(장난감·도서 대여)는 1만 2593명이 1만 5452건을 이용했다.

도는 충남아이키움뜰 휴일 주간 시간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다음 달부터 키움노리 서비스도 토요일 주간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야간 보육서비스와 24시간제 교사 상호작용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며 "앞으로도 양육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발굴·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1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보육서비스 소외지역인 청양군에 분소형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3

## 주민 주도 관광두레로 공동체 회복 '기대'

충남형 관광두레마을 4곳 선정  
공주·부여·서천·청양 쾌거

충남도는 '충남형 관광두레마을 육성사업' 공모 심사 결과, 금강과사람들 협동조합 등 4개 사업체를 선정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충남형 관광두레마을 육성사업은 그동안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한 육성사업은 ▲하숙촌 투어 및 먹거리 체험 '금강과사람들 협동조합(공주시)' ▲카페·게스트하우스·공방 운영 '구교마을 협동조합(부여군)' ▲동화책 제작 및 체험장 운영 '우리는 남전택(서천군)' ▲꿀벌 상품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자산 영농조합법인(청양군)' 등 4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주민사업체와 기획자에 대해 ▲활동비·상품 개발비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조직·경영 진단 및 멘토링 등 사업체

당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강과사람들 협동조합 최금옥 대표는 "옛날 하숙집이 많았던 공주 원도심에서 먹거리, 하숙촌 투어 등 추억의 하숙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창덕 도 관광진흥과장은 "주민 주도의 관광 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라고 말했다.

●관광진흥과 041-635-3882

## "베트남 진출 ICT기업 모이세요"

베트남 ICT박람회 참가지원  
내달 5일까지 온라인시스템 신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은 2020베트남정보통신박람회(VIETNAM ICT COMM)에 참가할 지역 정보통신업체를 다음달 5일까지 공모한다.

ICT COMM은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으로 충남은 선발전 4개사의 공동부스를 운영한다.

베트남 경제 수도인 호찌민에서 개최되는 ICT COMM은 베트남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지식서비스 박람회로 지난해 37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1만4420명의 산업관계자가 방문했다.

진흥원은 지식서비스분야 우수 지역기업 4개사를 선정해 공동관을 지원하고 사전 바이어 비즈매칭서비스, 숙박, 전문통역원, 화물운송, 기타 홍보비 등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기업은 충남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cntrade.kr)이나 진흥원 홈페이지(ctia.kr)에서 접수하면 된다.

맹창호 원장은 "지식서비스가 포함된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문화산업 중심에서 S/W 등 ICT분야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22

## 고별은 들고, 강기는 걸리고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3)

찬 기운이 몸에 깃드는 '고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 '감기' '감기→강기'는 충청말 특징

'강기에 걸려 된통 혼났유.'  
'○○-리이 되니까 또 걸려거리니면. 그리기 나뉠길 땀 고별 안 들게 옷 두겹게 입으라구 ㅎㅎ | 쓰잖어.'  
지난주엔 고별이 들어왔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니 자정이 넘었다. 피곤하다.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읽는데 머리가 멍하다. 졸린 것이 아닌데 눈이 감긴다. 아픈 것이 아닌데 몸이 막 불편하다. 피곤해서 그런 모양인가? 억지로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코가 멍멍하다. 오늘은 토요일, 푹 쉬면 컨디션이 돌아올 거야. 따끈한 탕에 들어 목욕을 했다.  
오후가 되니 미열이 난다. 코가 막혀온다. 이런, 고별드는 걸 모르고 샤워를 했군. 해열제를 찾는데

갑자기 불안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세상, 이거 나도 걸린 건 아닐까? 내일은 사무실에 나가야 하는데 나갈까 말까? 병원엘 가야 할까,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할까? 우한은커녕 중국도 못 가봤는데, 집밖에 나뉠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환자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도 막연한 불안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월요일 출근하는 길에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을 샀다. 열이 심한 것도 아니고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닌데,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다. 화요일이 되니 코에 불이 난다. 딱 막힌 코가 선하게 뚫리질 않는다. 수요일이 되어서야 코가 열린다. 뚫린 콧구멍으로 열이 빠져 나간다.

'고별'은 '감기(感氣)'를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코의 옛말인 '고'에 '불'이 합쳐진 말이다. 코에 불이 나 열 받치는 게 고별드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고별들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다들 '강기 걸렸다'고 한다.

'강기'는 '감기'의 충청말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편하게 한다.

'감기'는 입을 다물었다가 벌려야 나는 소리지만, '강기'는 입을 다물지 않아도 난다. 다른 말들도 다 그렇다. 서울 사람들이 문을 잠글 때 충청 사람들은 문을 잠근다. 서울 사람들이 간신히 가는 길을 충청 사람들은 갱시니 간다. 서울 사람들이 참견할 때 충청 사람들은 쟁견한다. 잠깐이 장간이고, 참기름은 쟁기름이 된다. 삼키는 것은 생키는 게 되고, 서울이 캄캄할 때 충청도는 캄캄하다.

'고별'은 찬 기운이 몸에 깃드는 현상이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쓴다. 반대로 '강기'는 병이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것을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고별은 들고, 강기는 걸리는 것이다. 말도 수상한 코로나19가 우수 절기를 가로막고 있다. 봄이 오는 마지막 길목, 고별 안 들게 입마개를 하자. 강기에 된통 혼나지 않도록 옷을 꺼입자.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 도립대 3년간 대기업 80명 진출

맞춤형 취업스터디 '결실'  
10명 중 6명은 '충남 취업'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산업맞춤형 취업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연속 재학생의 대기업 취업을 성사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맞춤형 취업스터디'를 추진한 결과 3년 누적 80명의 대기업 신입사원을 배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스터디를 통해 진출한 대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CJ제일제당, 태양광 셀 모듈 제조 1위 기업인 한화큐셀, 한국콜마, 보령그룹 등으로 식품, 제약, 유통, 화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산업맞춤형 취업스터디'는 재학생에게 채용

설명회와 업계 채용 동향을 제공하며 대기업 취업 설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 ▲입사 지원 클리닉 ▲기업분석 특강 ▲인·적성 특강 ▲모의면접 ▲동행 면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 전략을 구체화했다.

특히,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 청양군 등 유관기관과 기능적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대기업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도립대가 2019학년도 졸업생 취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충남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취업생 중 58%가 충남에 직장을 잡았다. 이 중 천안·아산에 자리를 잡은 취업생은 9%p였으며, 그 외 지역은 49%p를 기록했다. 취업자의 직장 유형으로는 대기업이 18%를, 공무원이 17%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이 32%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791



문화행사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일시 : 2월 29일  
 ■2004년부터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홍성군이 후원하여 개최하고 있는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는 회와 매콤한 양념무침, 사부사부 등 새조개를 재료로 한 요리 시식회 코너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가 함께 열린다. 풍물놀이와 공연, 노래자랑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새조개는 조개의 속살이 새의 부리모양과 닮아 새조개로 불리우며 크기는 애들의 주먹만하고 겉은 피조개와 비슷하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잡히는 것이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  
 ■문의 : 010-4241-1399

장일범과 함께하는 11시 콘서트

■일시 : 2월 26일  
 ■손다박 만한 하모니카로 세계대화를 석권한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이 천안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박종성은 4년마다 열려 '하모니카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독일세계하모니카대회에서 작곡으로 한국인 최초 트레몰로 솔로 부문 1위, 재즈 크로매틱 부문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진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곡 '꽃송이가' 중 하모니카 솔로 부분을 연주, JTBC경연 프로그램 '슈퍼밴드'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1566-0155

연극 '안녕 말판씨'

■일시 : 2월 27일~28일  
 ■'안녕 말판씨'는 고애심과 19세 소녀의 특별한 일상을 그린다. 이들의 삶에 어느 날 찾아온 낯선 남자로 인해 견잡을 수 없는 반전이 거듭된다.



손녀 역에는 그룹 '에이프릴' 채원과 뮤지컬배우 문슬아가 캐스팅됐다. 고애심은 거친 세상에서 홀로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캐릭터다.

■장소 : 서산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연극 '체흠, 여자를 읽다'

■일시 : 3월 11일~14일  
 ■안톤 체흠의 단편 소설 중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나의 아내들, 불행 등을 각색한 옴니버스 연극이다. 박준규, 고명환, 장희재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연극으로 희극과 드라마, 코미디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여자'의 복잡 미묘한 심리상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장소 : 서산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스티브 바라캇 화이트데이 콘서트

■일시 : 3월 14일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천안을 찾는다. 그의 음악은 우리 생활속 드라마, 광고, 영화, 안내방송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 이번 공연에서는 플라잉, 레인보우 브릿지, 캘리포니아 바이브 등 로맨틱한 무드의 대표곡들이 다수 연주된다.

■장소 : 천안예술의 전당  
 ■문의 : 1544-1555



백건우 콘서트

■일시 : 3월 19일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손끝에서 재탄생하는 베토벤의 웅장한 선율을 느껴보자.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인하여 건반 위의 구도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풍부한 레퍼토리 와 서정적인 피아니즘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세계적인 연주자이며,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서울그랜드필 하모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지휘는 서훈이 맡는다.

■장소 : 서산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금난새 신춘 음악회

■일시 : 3월 20일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금난새가 2020년 새롭게 움트는 봄을 연주한다. 뉴월드필하모니오케스트,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허영훈, 클라리넷 백양지, 바이올린 김해지 등이 출연해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비발디 '사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4악장 등을 연주한다.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문의 : 1566-0155

서천 동백꽃 주꾸미축제

■일시 : 3월 14일~29일  
 ■선홍빛 동백꽃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주꾸미가 조화된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3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 일대에서 개최된다. 500년 전 마량리 수군 첩사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심었다고 전해지는 마량리 동백 숲 일대에서 동백꽃 개화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축제는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로 살이 더욱 쫄깃쫄깃 고소해 맛이 일품인 주꾸미 요리 시식행사, 어린이 주꾸미 낚시체험, 포토존 등 예쁜 동백꽃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서해로 지는 노을을 함께 볼 수 있다.

■장소 : 서천 서면 마량포구 일원  
 ■문의 : 041-952-9525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

■일시 : 3월 25일  
 ■소극장 뮤지컬 최초로 제12회 한국 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과 작사/극본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초연 이후 14년에 걸쳐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다. 뮤지컬 당신이 잠든 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 가톨릭 재단의 무료병원을 배경으로 반신불수 환자 최병호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병원장 베드로가 병원 내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0-2900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시 : 4월 8일~11일  
 ■코미디 프로그램과 각종 예능프로에서 사랑받고 있는 '코미디왕' 배우 김민교가 직접 극을 쓰고 연출했으며, 출연까지 하며 대학로 최고의 이슈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학시어터에 서도 지난해 이맘때 공연돼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15년 전, 수지와 봉필은 순수한 첫 사랑을 하다 아픈 이별을 했다.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봉필이 첫 사랑 수지를 잊지 못하고, 급작스런 만남을 갖게 된다. 둘의 은밀한 만남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며 유쾌한 상상을 함께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소 : 서산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전시>고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

■일시 : 5월 31일  
 ■고암 이응노 화백이 1945년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서울과 홍성 및 전국을 기행하며 사생한 인물.풍속, 풍경.정물, 영묘화조, 그리고 추상을 위한 습작에 이르기까지 고암의 예술정신과 예술세계를 확립하기 위해 즐기차게 노력한 사생과 소묘작품 120여점 및 고암의 사생첩을 전시한다. 전시를 위해 '이응노의집' 소장품 중 '사생'과 '소묘' 작품 100여점을 우선 보존 수복했고, 이를 처음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소장품 전시다. 작품들은 연필소묘, 수묵채색, 콩테 등 그 시대의 다양한 미술대료를 사용했다. 서울 풍경과 홍성의 풍경, 피난시절의 풍경, 변화한 도심이나 고요한 사찰의 풍경, 소, 새, 꽃, 물고기 등 평소 고암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을 엿볼 수 있다.

■장소 : 홍성 이응노의집  
 ■문의 : 041-630-9232



<전시>고양이민화전 '냥덕之房'

■일시 : 6월 30일  
 ■한지를 염색하고 천천히 색을 중첩한다. 한지에서 오는 포근하고 따뜻한이 마치 고양이와 닮았다. 과감한 구도와 색채, 손스러운 듯 그리운 느낌, 소재에 하나하나에 행복을 바라는 소망을 담은 따뜻한 민중의 그림. 좋아하는 요소가 민화에 모두 담겨있다. <작가 노트 중>

■장소 : 논산 선사인스튜디오 내 문방구  
 ■문의 : 1811-7057

절개의 상징 '세한도'

충청의 미술인

②김정희(金正喜)

조선말기인 1786년 우리고장 예산에서 태어났다. 서예와 금석학의 대가였으며 정치가나 실학자로서도 업적을 남겼다. 본관은 경주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예당(禮堂) 시암(詩庵) 과노(果老) 농장인(農丈人)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등이다.

추사는 24세 때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에 가서 금석학과 실학등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뜬 선지자였다. 또한 두 번이나 귀양을 갈만큼 파란만장

한 일생을 살았다. 일생동안 벼루 열 개가 구멍이 나도록 먹을 갈았으며 붓 천 자루가 닳도록 글을 썼으니 절해고도에서 고독과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글씨와 그림으로 달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쓴 것이 「추사체(秋史體)」 요, 그린 것이 「세한도(歲寒圖)」다. 추사가 남긴 세한도는 문인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소개하는 「세한도」는 완당(阮堂)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 5년이 되던 해인 1844년 헌종10년(59세)에 그렸다. 역관인 제자 우선(優先) 이상적

(1804-1865)의 의리에 감동하여 그려준 것으로 이상적의 인품을 날씨가 추워진 뒤에 제일 늦게 낙엽 지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했다. 세한도는 시(詩), 서(書), 화(畫)의 삼절(三絶)로 조화를 이룬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준 그림이다. 그림 끝에 작화 경위를 담은 작가 자신의 발문

과 청대 16명사들의 찬사가 적혀 있고, 이어 뒷날 이 그림을 본 김정희의 문하생 김석준의 찬문과 오세창 이시영의 배관기 등이 함께 붙여 긴 두루마리를 이루고 있다. 예산군 신암면에 추사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인근에 많은 금석문이 산재해 있다. /임재광(미술평론가, 공주대교수)



1844년, 국보 180호, 수묵화, 23×69.2cm, 국립중앙박물관





# ‘목민관’을 다시 생각함

## 내포칼럼



김현식  
충청사회문화연구소장

며칠 전 양승조 지사의 아산집무실이 철수하는 현장에서 조촐하게 마련된 주민과의 환송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손바닥만한 마을회관 비좁은 집무실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는 지사와 비서진들을 보며, 보름여에 걸친 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은 생각에 콧등이 찡하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천막아래 적십자 봉사대가 마련한 점심상에서 자원봉사원들과 떡국을 먹는 소박한 ‘목민관’의 모습에 감동하여 그날 나도 모르게 몇 장의 사진을 정리, 폐북에 올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릇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리더의 현명한 결단과 솔선수범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조직이 와해되기 마련이다.

국민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적 재난이라면 더욱 더 위기극복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전쟁, 경제위기는 물론 지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까지 우리는 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평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리더도 이런 재난을 맞이했을 때 진면모를 알 수 있게 마련이다.

오늘, 우리도 전염병에 맞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극복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총선의 판도가 달라지게 생겼다.

옛부터 가장 자주 등장했던 재난은 단연 가뭄이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을 보며 국왕과 대신들은 기우제를 정성드려 지냈다. 이 때는 왕도 어전 밖에서 정무를 보았고 밥상의 반찬가지수조차 줄었다. 긴 가뭄으로 백성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과 대신의 부덕의 소치로 여겨

근신하고 또 근신했던 것이다.

관에서는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죄수의 심리를 매우 철저히 했고, 나라 곳곳을 열어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으며, 파헤쳐진 무덤도 해골을 찾아 제대로 묻었다 한다.

더위를 피해 모자를 쓰거나 부채질을 하는 것조차 금하였고 관마에게 곡식을 먹이지 않았으며 도살을 금하기도 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국왕과 대신부터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고행을 감내했던 것이다. ‘애민정신’과 ‘술선수범’ 이야말로 국난 극복 리더십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한교민의 수용문제에 대처하는 충남북 도지사 두분의 상반된 리더십이 언론에 회자되며 화제가 되었다. 온 국민이 위기에 대처하는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과감하게 수용의사를 밝히고 일관되게 이끌고 간 양승조지사의 철학과 소신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더욱 감동되었던 것은 한시도 지체 없이 집무실과 숙소를 마을회관으로 옮기고 계란을 맞으면서도 주민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해 내는 모습이 우리 도민과 국민들께 큰 감동을 주었다.

‘We Are Asan’ 슬로건의 몽클한 감동과 끝없이 이어진 자원봉사대의 발길로 우리 충남은 자랑스런 고장이 되었다.

도민의 위대한 승리를 이끈 우리 양승조 도지사에게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대기업종사자부터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참다운 리더’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 위기때 빛 발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현명한 결단과 솔선수범 정신 필요

## 코로나19 교민 대응적 수용 결단 아산집무실서 진심어린 소통

## ‘We Are Asan’ 시민 활동 몽클 충남, 국가 재난극복 앞장 ‘모범’

# 청년의 색깔을 지켜줘서 고마워

## 힘내라, 시골청년



정명진  
(주)지역콘텐츠발전소 대표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한겨레21>에 큼지막하게 실린 ‘청년문화예술 협동조합 들락날락’ 청년들은 금산 시장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들락날락 청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재미있는 친구들이라 생각했다. 시골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라고 할까?

읍내에 모여서 머리에 깃털을 달고 얼굴에는 인디언처럼 치장해서 놀기도 하고(지역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청년들은 스스로를 ‘인맥부족’이라 부르며 부족 놀이를 했다), 숲에서 활쏘기, 퍼머컬처 디자인, 페니미즘 독서토론 등 별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펼쳤다.

이 친구들 중에 ‘마고(별칭)는 충남의 공익활동을 담은 사례집에 ‘들락날락’ 이야기를 쓰기 위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적 있다.

“지역분들 눈에 저희가 예뻐 보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신기하게 놀기도 하고, 어른들이 술 마시러 오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사실 지역 토착 문화에는 후진 부분도 많아요. 젠더 감수성도 없고.....”

2018년 봄에 했던 인터뷰에서 마고가 한 말이다.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시장 곳곳에서 창업을 하고 시장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를 기획하며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한다.

이제는 금산 지역 분들도 들락날락 친구들을 예쁘게 보지 않을까. 들락날락 청년들은 바래져가는 금산을 다채롭게 만드는 보배 같은 존재니까.

요즘 ‘들락날락’은 충남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5년간 시골 청년들의 주거, 문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문제를 풀어내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자립까지 실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골에서도 청년만의 색깔을 잃지 않은 것이 ‘들락날락’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시골은 청년문화가 숨쉬기 힘든 곳이다. 농촌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짓눌린다. 더구나 시골청년들은 어른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내가 만난 청년들은 흑여나 농촌 어르신들에게 누가 될까봐 행동 하나 하나를 걱정했다. 가끔씩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다. 표정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애늬은이’가 된 친구도 있다.

그리고 보니 노란색, 분홍색으로 알록달록 했던 ‘들락날락’ 청년의 머리색이 기억난다. 염색한 머리를 보고 어르신들은 또 얼마나 혀를 찰까.

이번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니 머리색이 차분하게 바뀌었더라. 하긴 머리색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을 보니 여전히 알록달록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젊은 친구들이 저마다 자기 색깔로 빛날 때 시골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나태주의 꽃꽂이



시인·꽃꽂이문화관장

내가 낸 책 가운데 제목이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란 책이 있다. 10여년 전 두 차례의 병원 체험을 기록한 책이다. 흔히 사람들은 병원 체험이나 그런 것들은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런 의도로 쓴 책이다. 책을 낼 때 책의 제목에 대해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 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이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인가 하는 말이 그것이다. 우선은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다. 하나의 보은의 생각이고 일방적 입장이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병원에서 죽을병을 앓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 지인들이 나타러 그랬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내가 산 것이 그쪽의 고마움이 되는가? 처음엔 나도 그 말이 좀 어색하게 들렸고 의아스

러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의 문법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였던 것이다.

그 뒤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었다. 당신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내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힘들었고 불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고를 이기고 살아서 퇴원한 것을 보니 나까지 기쁘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생환이 이제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심리적 형편들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두고두고 고마운 언사가 아닐 수 없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또한 새로운 삶이나 생각에 대한 깨달음이 아닐 수 없다. 그 뒤로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나의 삶이 또 많이 바뀌었다.

누군가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값을 냈다고 하자. 그런 때에도 하 나도 밥값 낸 것이 억울하지 않았다. 밥값이야 내가 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하물며 길을 걸을 때 함께 길을 걸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고적한 시간 나의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가.

# ‘위기’를 ‘기회’로

## 생생현장리포트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

2007년 12월 7일 태안기름유출이 발생한 지도 벌써 12년을 훌쩍 넘고 있다. 피해 배보상도 현재 진행 중인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피해민들의 아픔을 또다시 후벼 파는 갈등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기름유출사고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받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얘기다.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건네받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현재 사고의 중심인 태안지부를 비롯해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4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서산·당진·서천지부는 조합원들에 의해 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반면 태안지부는 소원·근흥·원북·이원의 북부권과 안면·고남·남면의 남부권으로 분열돼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법정 싸움도 벌이고 있다. 두 차례 예고됐던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해 태안지부는 내용이 심화되면서 양분돼 서로 선거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어 조합원인 피해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당진지부에

서는 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토지를 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지난 10일 당진지부 조합원들이 당진지부장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화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결국 삼성지역발전기금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나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피해민들 간 갈등을 격화되고 피해민들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조성 이유와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 피해민을 위한 기금인 만큼 어장환경 복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물론 피해민을 위한 권익보리증진사업이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굶을 대로 굶었다. 더 내버려둔다면 굶아 터져 피가 날 만큼 환부가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기득권은 오직 피해민을 향해야 한다. 내후에 빠져 밥그릇에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욕심을 버리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피해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정상궤도를 향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허베이조합이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조직으로 남도록 뼈를 깎는 반성과 고뇌에 찬 고민을 해주길 기대하고 바라본다. 더 이상 늦춘다면 피해민을 위한 기금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눈에 보는 충남 사회지표 2

저출산이 교실을 썰렁하게 강타  
충남 고교 학급당 학생수 2년새 3.7명 감소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에 사력

충남의 삶의 만족도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점을 기준으로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2017년 5.97점에서 6.13점으로 소폭 높아졌고, 삶에 대한 가치도 6.03에서 6.32로 상승했다. 행복만족도는 6.05에서 6.22로, 근심 걱정은 4.4에서 4.37로 낮아지며 '행복한 충남'이 가시적으로 좋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앞으로 10년 후에도 거주하겠느냐는 도민들은 2017년 64.8%에서 70.2%로 높아지는 등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자살자 수(10만 명당)는 2018년 기준 전국(26.6명) 보다 8.9명이나 많은 35.5명으로 나타나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양성 평등이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도는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투표율은 각종 선거에서 전국 보다 2~5% 가량 낮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도정신문팀

##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10점 평균]



※ 출처 : 충남 사회조사

## 앞으로 10년 후에도 거주지역에 계속 살겠다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단위 : %, 10점 평균]



※ 출처 : 충남 사회조사

##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연간 사망자수]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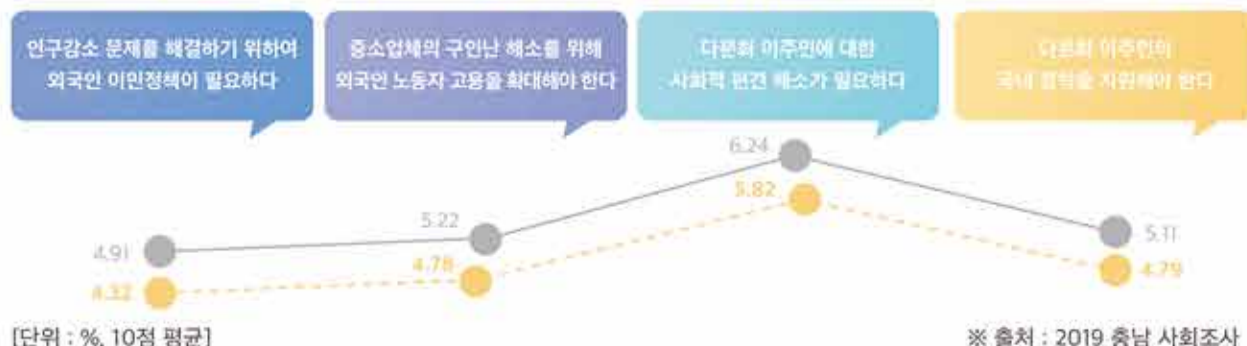
## 도민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10점 평균]

※ 출처 : 2019 충남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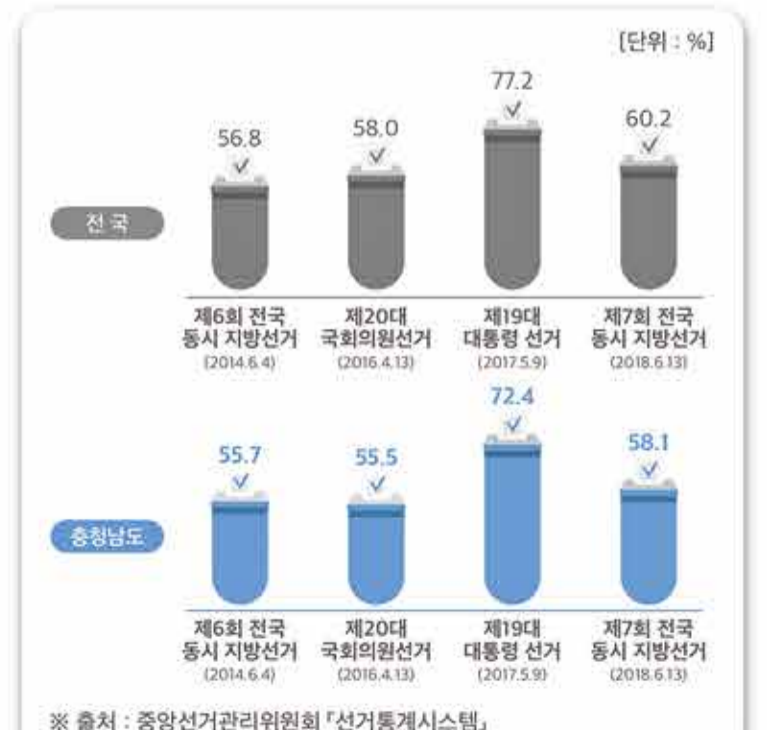
## 도민의 다문화 사회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단위 : %, 10점 평균]

※ 출처 : 2019 충남 사회조사

## 투표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코로나19 극복 시군마다 지역경기 살리기 총력

서산시, 서산상품권 40억 발행  
당진시, '테이블 윈 플라워'  
태안군, 금요일은 장보는 날  
서천군, 서천전통시장 10%할인  
계룡시, 골목상권 소비지원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서산시민단체에서 진행한 헌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시군이 발 벗고 나섰다. 서산시는 19일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가동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오는 3월 2일 40억원 규모로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3월 31일까지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에 들어갔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조기추진,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전액사용 독려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통시

장과 상가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산시도 현재 전통시장과 일부업소에만 한정돼 있는 아산사랑상품권

의 가맹점을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으로 확대해 가입대상을 360개소에서 2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지난 14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정하고 공무원 출장 조치해 관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사무실 윈 테이블 윈 플라워', '기념일 꽃바구니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먼 천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는 당진의 대표 화훼작물인 프리지어는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았으나,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천군은 장항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상인들과 뜻을 모아 품목별 10% 특별 할인행사에 돌입했다. 이

번 행사는 2월 18일 장항전통시장 수산물등을 시작으로 29일까지 12일 간 서천특화시장 수산물등, 일반등, 농산물등, 먹거리등을 포함한 총 309개의 점포가 동참한다.

계룡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조기 지원과 지역 상품권 할인시행,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추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산시는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32%정도 감소함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을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용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까지 늘렸다. 논산딸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지자체 등을 구매운동을 전개한다.

/도정신문팀



## 예산 광시 황새 자연 번식 포착 산란알 5개 부화 기대감

[예산]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동지탐에서 최근 황새 산란알 5개가 확인돼 자연번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산 군따르면 2015년에 방사한 수컷 A05와 2018년에 방사한 암컷 B37이 교미해 2월 3일 5개의 알을 산란했다. 통상 2월초 알을 낳고 3~4월쯤 부화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도 자연 방사한 황새의 번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 제공

## 개그맨 안소미 '당진사랑 화끈'

당진 출신 남편과 결혼  
우수 특산품 홍보 앞장

[당진]개그맨 안소미(31)의 남다른 당진 사랑이 화제다. 지난해부터 당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소미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방영된 KBS 인간극장 '이겨라 안소미'에서도 당진 사랑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안소미와 당진의 인연은 지난해 4월 당진시 합덕읍 출신 동갑내기 남

편과의 결혼으로 '당진의 며느리'가 되며 시작됐다.

'당진의 며느리' 보다는 '당진의 딸'이라고 불리는게 더 좋다는 안소미는 지난해 당진청년센터 아래에서 열린 청년콘서트 MC로 참여하는 등 당진시 홍보대사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와 당진의 우수 특산품을 국내·외로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내는 명절인사 영상과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당진시 제공

## 홍성 죽도 관광 명소화 나선다

50억 투입해 등대 등 설치  
먹거리 발굴 관광 투어 실시

[홍성]홍성의 유일한 유인도 죽도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내년까지 50억 원이 투입된다.

홍성군은 관광객수는 2019년 588,803명으로 전년 대비 5만1342명이 늘었다

데, 죽도 트레킹 방문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

죽도는 대나무 숲 절경이 가득한 1270m 길이의 탐방로 및 섬 곳곳의 조망대 등 빼어난 절경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군은 올해 서부면 죽도리 일원 방파제 및 등대 설치사업 착공에 들어

간다. 방파제는 길이 80m, 등대설치 높이 15m다. 선박의 안전운행은 물론 지역 관광 명소화도 기대 된다

또한 군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죽도 일원 탐방로 주변 등 동백나무 및 백일홍, 꽃 양귀비 식재 등 경관수 식재 및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에도 착수한다. 올 3월 착공해 6월 준공예정인 사업완료시 관광객들에게 죽도의 호젓한 분위기를 더해 줄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정신문팀

## 백제부흥운동 거점 예산 임존성

새로 배우는 충남학

예산 봉수산 3km 성곽

백제부흥운동 태동 거점

충절의 고장의 발로



예산 대흥면에 위치한 임존성 전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위치한 봉수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여 년 전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임존성이 있다.

임존성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 등 3개 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봉수산 정상부에 구축된 석축성으로 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축조된 테피식 산성이다. 성벽 바깥은 차곡차곡 돌을 다듬어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운 내탁법으로 축조되었다. 현재에는 성문터와 성문 밑으로 개울물이 흐르게 하던 수구문, 그리고 우물터, 건물터가 남아 있으며, 사적 제90호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임존성은 백제 당시 수도 경비의 외곽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봉수산 정상에 둘레 약 3km에 걸쳐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나당연합군에게 패한 후 당시 흑치상지를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 태동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피폐해진 백제 유민들은 잃어버

린 나라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660~663년까지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백제부흥운동 4년간에 걸친 항쟁은 당군의 군사활동 범위를 제한함과 나당연합군에 대한 항전을 통해 백제 사람들의 충의사상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충청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충절의 고장'이라 불려왔고, 충남의 이런 기질적 특성이 많은 학자들과 독립 운동가, 의병을 배출한 고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나쳐왔던 역사 유적을 되돌아보고, 충남의 정체성과 정신을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한다.

임존을 지나 새봄이 찾아오고 있다. 충남 예산 봉수산에서는 예당호를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고, 2007년 도에는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개관하여 지역 주민 및 충남도민에게 휴양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김인영(천안시)

## 공주 '중고제 판소리 명창' 도록·CD 발간

"충청 중고제 복원 밑거름"

[공주]일제강점기까지 가장 인기 있었던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예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10~1930년대에 취임된 중고제 명창들의 유성 음반을 최신 기술로 복각하고 그 도록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에는 △배연형(한국음반아카데미연구소장)의 '판소리 중고제 이야기' △최혜진(목원대학교)의 '중고제 소리 명창들의 삶과 예술 등 전문가들의 글을 담았다.

특히 중고제 판소리 명창 CD는 공주에서 활동했던 중고제 명창 김창룡, 이동백, 신정순, 심상건, 심태진 선생



의 소리를 담은 것으로 2500개를 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관내 도서관과 공주문화원 등에 배포했다.

중고제 발흥지 공주시는 김석창, 황호동, 이동백, 박동진 등 많은 명창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공주시 제공

## 청양 구기자삼수 판매 '고소득'

전국 유일 명선식씨 농장  
농한기 증식용 키위 보급

[청양]청양군 금송농원 명선식(56) 씨가 구기자삼수 보급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구기자삼수를 농가에 보급하는 곳은 명씨의 구기자 농장이 전국 유일하다. 2월에 삼수작업 3월 분양 등 농한기를 이용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구기자는 통상 묘목이 아니라 15cm 정도의 연필크기 만한 삼수로 번식한

다. 삼수는 식물의 가지나 잎, 눈 따위를 꺾거나 잘라 흙에 꽂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명 대표는 구기자연구소로부터 보급용 8품종을 분양받아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에 심었고, 지난해 2월 삼수작업을 거쳐 3월 처음으로 6만주를 전국 농가에 분양했다.

이순금/청양신문사  
ladysk@hanmail.net



# 예산사과 맛있는 변신, 한번 잡숴보실래요

아삭하고 상큼한 예산사과빵  
쫄깃 새콤달콤한 사과국수  
은은한 사과향 사과발효커피



사과빵

상큼함을 느낄 수 있다. 예산사과사업단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상품을 만들려는 취지로 출시했다.

사과빵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모양과 맛을 완성했다. 빵을 더 부드럽게 하고, 사과 함량을 늘려 식감을 살려 사과향이



사과국수

더 풍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예산사과사업단은 사과분말을 첨가한 사과국수를 완성했다. 예산사과를 말려 분말로 만들고 그 분말을 국수반죽에 첨가하면 일반 밀가루 국수보다 훨씬 탄력이 생긴다.

탄력이 우수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사과발효커피

착안해 사과비빔국수도 출시했다. 사과를 갈아 넣은 소스와 쫄깃한 사과국수 면발, 고명으로 얹은 사과가 만나면 새콤달콤쫄깃한 예산사과비빔국수가 된다. 사과비빔국수는 예산지역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예산장터국수가 지난해 11월부터 손님들에게 대접하

고 있다.

‘예산만의 커피’가 사과발효커피다. 정성희커피 정성희 대표는 지천이 사과농원인 응봉에 살며 예산에서 유명한 것으로 뭔가 만들어보자 고민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사과와 커피 원두만을 갖고 발효과정을 통해 사과발효커피원두를 만들었다. 이를 로스팅해 핸드드립으로 추출해 낸 것이 사과발효커피다. 그 이름이 낯설어 호기심은 있어도 막상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산미가 심하지 않고 끝맛은 은은히 퍼지는 사과향을 느낄 수 있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 애뜻한 내 고향 석문 ‘장고향 부르스’

고향 노래로 음반 낸 김용균 씨  
실치잡이 떠올리며 작곡  
어릴적 꿈 50 넘어 펼쳐  
유튜브 ‘석문사랑방TV’ 운영

“장고향 노적봉에 춤추는 갈매기야, 선창가 아나네의 노랫가락 흥겨워라. / 만선의 꿈을 싣고 국화도 앞바다로 고기 잡아 돌아오마 손을 흔들며, / 푸른 꿈을 통통배에 싣고 떠난다. 멀어지는 장고향에 손수레를 밀고 나오신 어머니의 근심 걱정 파도에 묻고, / 오늘도 실치 잡아 돌아오려다.”

(장고향 부르스)

태풍 링링이 지나갔던 지난해 9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고향 선착장으로 나갔다. 문득 실치잡이를 떠나는 강정의(장고향실치잡이축제 위원장) 씨

의 모습이 떠올랐다. 실치잡이를 나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생각하며 곡을 지었다. 새벽녘 30분 만에 완성한 곡 이란다.

김용균(59, 석문면 교로1리) 씨가 최근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3곡을 모아 음반을 냈다. 작은 미니앨범이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정성이 담겼다. ‘만리포사랑’ 처럼 고향에 대한 노래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의 첫 작품 ‘장고향 부르스’가 태어났다.

두 번째 곡 ‘삼봉아리랑’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곡이다. 그가 어렸을 땐 통정리에 장이 서곤했는데 ‘터거리장’이라고 불렀다. 교로리에서 삼봉산을 지나 통정리까지 장 보러 나간 어머니를 마루에 앉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지은 노래다.

“삼봉산 넘어 넘어 저녁노을 붉게 들면 장에 가신 우리엄마 꽃신 들고



오신다네, 마루턱에 걸터앉아 암마 오시길 손꼽아 기다리던 아 어린 시절 그림고도 그림구나.” (삼봉아리랑)

“고향을 담아낸 노래를 통해 옛날을 추억하면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장고향, 삼봉 등 아름다운 내 고향이 노랫소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길 바랍니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 유례없는 김 흥작에 어민들 ‘울상’

15°C 높은 수온에 생산량 급감

[서천]포근한 겨울날씨로 김 생산량이 감소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김의 주생산지인 전남과 충남에서 고수온 및 갯병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6%가 감소했고, 서천군의 물김 생산량은 생산계획(4만2000톤) 대비 48.5% 생산해 전년 대비 19%나 감소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당초 김 생산계획은 올해 총 생산어가는 350여 가구로

3333ha에 6만 척의 김 양식장을 설치해 마른 김 기준 1200만속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월 말 기준 물김 생산량은 생산계획 4만2000톤 대비 48.5%로 지난해 1월과 비교했을 때 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초기 황백화와 갯병으로 인한 업체 탈락으로 작황이 부진을 겪은데 이어 예년 이 비해 1.5°C 높았다.

김장환/서천신문사  
news1128@hanmail.net

## 고구마 무병묘 6만 본 무상공급

[태안]태안군이 황도호박고구마 명품화를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무료로 농가에 공급한다. ‘무병묘’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 무(無) 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를 계대배양을 통해 대량 증식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고

구마 무병묘를 생산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6만 본의 고구마 무병묘를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분양할 계획이며, 농가에서 일정기간 증식 후 식재해 내년에 재배할 씨고구마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태안군 제공

## 아내 향한 여든 노인의 끝없는 사랑

당진 고대면 유윤근 씨  
고마운 아내에게 詩 헌정  
아픈 아내 위해 밥상차리고  
아내 위한 고마움 글로 표현



아랫단에 하얀 천을 덧대 입고 있었다. 당시엔 아궁이에 불을 때다 치마를 태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그 처녀와 옷방에서 맞선을 봤다. 그런데 전혀 단장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온 것이다. “됐다!” 나는 생각했다. 꾸밈없는 모습이 거짓 없이 참되 보였다. 그리고 붓으로 집 주소를 한문으로 써서 주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다. 그렇게 아내(김순희)와 결혼을 했다.

아내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팠을 때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나를 돌봤다. 거기에 3명의 자식까지 돌보

면서 내가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도맡아 일했다. 아내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지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아내가 2년 전부터 크게 아프기 시작했다. 거동도 힘들었다. 아내에게 내가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밥을 짓고, 따뜻한 차를 끓여 내준다.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를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거절했다.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한다.

지난 2017년 여든을 맞이하며 첫 번째 시집 <심심해서>를 냈고, 최근에 두 번째 시집 <노을>이 나왔다.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글감이 되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려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잊지 않기 위해 글을 쓴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 공주 ‘알밤한우’ 박사 탄생

공주시 공무원 전홍남씨  
울피사료 먹인 한우 육질 연구



농업 6급)씨가 주인공. 전 씨는 호서대 대학원(식품생물공학전공)에서 ‘울피 급여에 따른 한우 육질의 비교연구’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이학 박사’가 됐다.

전 씨의 논문에는 밤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울피(밤의 속껍질)를 한우에 먹인 후 육질을 비교한 결과 소고기의 감칠맛을 결정하는 아미노산 성분과 지방산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공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밤나무 품종 간 기능성을 비교하고 밤나무 구성 부위별로 향산화 효과를 분석하는 등 밤과 밤나무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돼 있다.

/공주시 제공

[공주]공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공주시청 축산과에서 공주알밤한우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전홍남(56세,



눈 덮인 부여 공남지

[부여]지난 17일 모처럼 눈이 내린 가운데 백제 무왕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부여 공남지가 오랜만에 설경을 뽐냈다. 부여 공남지에서는 해마다 천만송이 연꽃의 자태가 방문객을 황홀경에 사로잡는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열린다. /부여군 제공

# 도시재생의 중심은 ‘사람’... “관계맺기가 중요합니다”

## 2019 지역혁신가를 만나다

### ① 최광운 천안청년들 대표

#### 천안역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오픈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재생 앞장

혁신은 젊음과 맥이 닿아 있다. 답습과 관행을 뒤로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젊음의 패기와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기 때문이다.

천안 원도심 한 상가 사무실에서 만난 최광운(38) 천안청년들 대표는 젊은이 특유의 활기와 패기가 가득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의 이름처럼 말이다.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은 천안역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구성됐습니다. 원도심에서 창업한 청년들 70명으로 구성돼 있고 동네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획, 창업 컨설팅, 청년복덕방(임대정보 등) 등의 일을 비영리로 하고 있죠. 천안 원도심이 다른 곳과 비교되는 이유는 저희 같은 청년들, 주인이 먼저 도시재생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최 대표의 소개처럼 천안역 원도심은 관 주도가 아닌 주인이 먼저 나선, 국내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이들은 1990년 이후 쇠락과 공동화 현상을 겪은 천안시 원도심에 청년 창



최광운 대표, 천안역 원도심 재생에 참여한 상인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업으로 도시재생, 역사권 개발, 지역공동체 공간을 만들었다. 천안의 대표 축제 흥타령춤축제의 ‘흥’을 브랜드화해 지역 브랜드 ‘11010’을 제작했고, ‘천안 솜바꼭질 축제’를 통해 원도심의 기존 상인들과의 화학적 결합을 추구했다.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최 대표에게서 남다른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

는 이유다.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의 초대 이사장이자 구심점인 최 대표는 천안청년들로 대표되는 실험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 ▲대한민국 1호 도시재생 전문 큐레이터 ▲(사)도시재생활동가네트워킹 사무국장 ▲도시재생활동포럼 책임연구원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

크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이밖에도 아산시, 평택시, 광명시, 천안시, 포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도시재생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잘 나가던 역대연봉의 자동차 딜러를 뒤로 하고 2014년 천안역 주변에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주변인 모두가 만류한, 다소 무모해보였던 도전이었다. 주변 상인들의 탐탁지 않은 시선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지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게스트하우스는 성업을 이어갔다. 창업을 앞두고 천안의 각종 현황과 상권,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한 결과였다.

“하루에 10명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창업 1년차에 약 2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코레일의 ‘내일로’와 연계해 청년 관광객을 받았고 대학 입시철 천안을 찾는 학생들에게도 하룻밤 머물 공간으로 입소문을 얻은 결과였죠.”

그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다.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시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업방법을 연구해 실천 강의에 응용하면서 도시재생 전문가라는 제2의 직업을 얻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활태조사

회를 맡아보며 진행자로서의 자질도 확인했다.

최 대표가 강조하는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속성’과 ‘관계 개선’이다.

“보여주기 좋은 것과 살기 좋은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을 허물로 새로운 것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속성이 없으면 사람이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개선, 생활환경 개선이 중심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 대표는 광명·아산시 도시재생 자문, 강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올해는 보다 알기 쉬운 도시재생 관련 안내서를 집필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가장 알려진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다.

“도시재생 자문을 맡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천안역 원도심 도시재생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수많은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을 짜고 싶습니다. 물론 그 곳의 주민들과 함께요.(웃음)”

/김혜동 khdf1226@korea.kr

## 봉사가 일상인 명장 아버지와 봉사왕 아들

### 신우영씨 국가품질명장 아들과 함께 매주 봉사

[당진]명장 아버지와 아들의 봉사가 화제다. 아버지 신우영 씨는 현대제철 열연정비팀의 기장이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다. 오래전 우연히 국가품질명장의 강의를 보고선 “한 번 해보자” 결심했고 그 결심을 하나하나 이뤄나갔다.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고 논문과 책을 집필해야 하는데, 명장이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봉사였다. 그런 이유로 2007년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처음 함께 한 봉사는 원당중학교에



소속된 가족봉사단이었다. 그때 함께 봉사를 시작하며 이웃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시작했다는 아들 동국은 당진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해창요양원은 한 달에 두 번, 평안

마을도 한 달에 두 번씩 거의 매주 봉사활동을 하러 나간다. 또한 종종 아버지를 따라 도배 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버지 신우영 씨는 봉사왕이다. 현대제철 소속의 기장봉사단과 이웃사랑 나눔회, 명장연구회에 속해 있으며, 이웃사랑나눔회와 명장연구회는 회장까지 맡고 있다.

당진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우호)는 지난해 4분기 봉사왕으로 동국 군을 포함한 5명을 선정했다.

아들 동국 “해외봉사 등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수미/당진시대  
d911112@naver.com

## 선조들의 멋 만끽할 테마파크 조성 꿈

### 매듭·자수·한복 박정에 명장 “조상 멋 만끽할 공간 필요”



[홍성]매듭·자수·한복 분야 국내 명장 반열에 올라 있는 박정애(64·사진) 씨는 7년 전 홍성과 예산의 경계 지역인 수덕초등학교 뒤쪽에 2층짜리 건물을 마련했다.

그는 300여 점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 대부분이 직접 만든 것들이다.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멋과 지혜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는지가 최대 고민거리고, 남은 생애동안 그가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과제다.

그는 조상들의 멋과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소망한

다. 조상들의 멋과 향기를 품은 공예품들을 전시할 박물관에는 옹기쟁이, 대장장 등 옛 전통공예를 재현하는 공방들도 갖추고 안동 하회마을의 탈박물관처럼 숙박이 가능한 공간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을 두루 갖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귀걸이 등의 장신구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의 화려하고 정교한 매듭에는 지나간 시대의 생활문화 전반을 현대인들 마음에 단단히 묶어놓는 일이다.

김경미/홍주신문  
rlarudal4767@daum.net



### 사서들의 서재

##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두가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이내 물 흐르듯 지나가고 사람들 앞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모든 것을 막아선다.

불현듯 하게 되는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원망과 후회, 죽음도 두렵지만 삶 또한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쌓인 지금까지의 경험이 나를 만들고 나를 속박한다. 많은 혼란 속에 혼란하다는 상태조차 못 느낄 때 즈음 저자는 삶을 위한 용기를 이야기한다. 과거에 매몰되지 마라, 과거에 휘둘리지 마라, 그렇다고 미래에 집착하지도 마라.

현재를 살기 위한, 그리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는 곧 변화를 가져온다. 남을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닌, 나를 위해 남을 돌볼 수 있는 온전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타고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적응하는 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는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 제목처럼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인간은 주어진 환경 50%,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 50%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그리고 둘 중

어느 것도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기존의 프로이트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 일견 흥미롭기도 하지만 사실 아들러의 논리도 이제는 고전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 신선함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기성학설로 파악하면 된다. 나도 많은 날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요즘 느끼는 것이 후천적인 면보다 선천적인 면이 더욱 크고, 주어진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재미있게도 청소년기에 가장 싫어했던 ‘주어진 것에 순응하여야 한

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를 이제는 기성세대로서 혼자 되뇌거나 후배들에게 열렬히 이야기하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것도 우위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단순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그 자체니까. 선천과 후천 그리고 나,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문득 용기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도서를 조금씩 넘기며 읊조려보면 어떨까?



방승항  
충남도서관 사서



(기시미 이치로 지음, 전경아 옮김)

제317회 임시회

## ‘주체적 자치분권 실현’ 당부

###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주체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자치행정국은 2020년 ‘도민이 선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과제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보고했다.

안장현 의원(아산4)은 “도가 국가의 지방분권 계획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닌 주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도정 전반에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인환 의원(논산1)도 “도가 정부의 지방이양 계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자치분권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의정협의회·연구원 등 우리가 보유한 자치협의회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다자녀 공무원 지원혜택 등을 도 분청 뿐 아니라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소수직렬을 균형적

으로 배려하는 공정한 발탁승진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관 리항 개발·운영 권한, 외국인투자 유치기관 등록 등 국가사무의 도 이양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자리에 여성임용을 시작으로 주요보직에 여성을 적적소에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도정에 정착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고 도민인권지킴이단원의 역량교육과 사후평가 시행 추진을 제안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은 “도 예산의



이공휘 위원장



안장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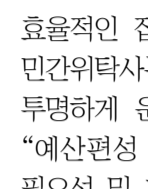
조길연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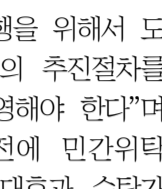
홍재표 의원



오인환 의원



이선영 의원



이영우 의원



한영신 의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수탁가 능업체 등을 사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처리절차를 원칙과 기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근본 목적이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인 만큼 회원들이 다수 직능단체의 직을 겸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문

###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제31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서관과 충남문화재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충남도서관은 도내 작은 도서관의 지역 분포, 장서 수, 평균 이용자 수 등 기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은 작은 도서관이 도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충남도서관 홈페이지 내 건의사항과 게시물 등 도서관 이용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영란 의원(비례)은 “충남도서관이 예산·홍성 등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시청각 장애인도 도서관이 갖춘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윤봉길 의사의 흥커우 의거를 바탕으로 제작한 뮤지컬 ‘위치’가 오랜 세월 공연되는 명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옥수 의원(비례)은 도 문화회관의 저조한 공연률을 지적하며 “적극적 공연 유치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 관련 사업 추진시 지



김연 위원장



김옥수 의원



김기영 의원



김한태 의원



여운영 의원

원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단체나 개인이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충남역사박물관에 대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제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황영란 의원

안과 홍보 강화 등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농가소득 향상’ 계획 수립 주문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추진을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등을 자가제조해서 사용하거나 도내에서 생산하는 약제 등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체계적으로 병해충제,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에 대해 연구·개발·보급하는데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충남농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품종·우량 종자 보급, 스마트 농업 등 미래형 경영모델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관련 시범사업 중 성과가 나는 사업 중심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경쟁에 지친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서 치유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치유농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관련 산업을 깊이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선 의원(당진2)은 “보조금에 자부담이 포함된 경우에 자부담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시스템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각 지자체는 정책상 필요에 따라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의원



김명선 의원



김기서 의원



김명숙 의원

을 지원했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 집행액에 대해서도 충분한 확인·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은 “원예특작의 시설하우스 내재형 표준모델이 20년 이상 경과했고 작물별 분석이 아니라 통합표준형 시설하우스”



김영권 의원



방한일 의원



양금봉 의원

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모델 분석을 기초부터 다시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코로나19 차단·혁신도시 지정 총력”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방역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이달 초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숙소 인근에 마련된 현장대책본부를 방문해 감염병 대응상황과 방역 대응체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감염 확산 차단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

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올해부터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비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비가 증액되고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지원된다”면서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제동장치 설치(시외버스 63대, 1억5800만 원)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화물·특수차량 603대, 2억 4120만 원)가 추진되고 있다”며 “해당되는 모든 차량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등 올해와 내년엔 확정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도의 주요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와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계양 의원(비례)은 “올해 건설 SOC분야 정부예산을 당초 목표액 보다 901억 원 많은 1조766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



장승재 위원장



전익현 의원



정광섭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형도 의원

요구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했다”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준비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도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지정근 의원(천안9)은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오랜 시간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그 계획이



이계양 의원



조승만 의원



지정근 의원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몰대상 2995개소 274㎢ 중 정비 완료 계획에 포함된 2144개소 18.0㎢(65.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17회 임시회

# 교실 내 CCTV설치 시범학교 운영

##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가 제317회 임시회 기간 소관부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올해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석근 의원(금산1)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외국 사례를 분석해 교실 내 CCTV설치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기존 생존수

영 교육의 경우 수중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생존능력을 키워 줄 수 있지 의문스럽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선 일반수영과 생존수영을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2025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혁신학교 운영은 동참하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학교 선정 절차에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향토사 강좌를 통해 내 고장의 문화와 역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애항심 고취와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향토사 프로그램 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학생 안전과 편안한 등교를 위해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노후화 통학버스의 자체점검 강화를 통해 조기폐차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토대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개학 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민수당제 도입’ 토대 구축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끝으로 11개월의 연구 활동을 마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방 의원을 대표로 김득응 농경환위 위원장(천안1)을 비롯한 김복만(금산2)·김명선(당진2)·조승만(홍성1)·김영수(서산2)·이선영(비례) 의원과 김병혁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방한일 의원은 3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가졌고, 이후 수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현장을 찾아 관련 논의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를 청취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 토론회를 열어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발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1월 마지막 활동으로 농민수당 조례안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로드맵,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언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배포했다.

방 의원은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문화관 활성화 방안 모색

문복위, 전문가 간담회

충남도의회 김연 위원장(천안7)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문학관장 및 도 문화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충남지역문화관 활성화 방안 포럼’의 후속으로 문학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문학관 지원 예산 편성 ▲등록심의회 규정 개정 ▲시·군 문학진흥조례 제정 ▲중부권 거점형 문학관 건립 등이다.

조규범 충남문화관협회장은 “2017년 12월 충청남도 문학진흥조례의 제

정으로 문학관 지원 근거가 생겼는데도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 조례 정비 및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여건이 열악한 문학관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문학관에 대한 사업 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사업에 대한 시군과의 협의 의향을 밝혔다.

김연 위원장은 “금일 간담회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의회, 집행부, 문학관 관계자가 한데 모인 상호 소통의 장으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재 문학관 소재지인 8개 시군 조례 제정 등 단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민 체감’ 정책연구 새 밑그림 착수

정책위원회, 올해 첫 정기회의

충남도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가 올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체감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한 새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정책위는 지난 2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명숙 위원장을 비

롯한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지난해 추진한 소위원회 자문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방향과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 도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숙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책위는 명실상부한 도의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책 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나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2년차를 맞아 의정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원시론

#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날까지!



조승만 (홍성1) 충청남도의원

충선 시즈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한 만큼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번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며 이번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 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되면서 인구는 13만 여명이 줄어들고 면적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가 감소했다. 또 지역총생산은 25조원이 줄어들어 1차 공공기관, 기업이전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이 배제되고 혁신도시 위주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 달 대구·경북(TK) 일부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이 충남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를 통해 내포신도시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충남도 범도민 단체와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지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 규탄 결의를 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이 추진되고 도청이 소재한 수부도시답게 성장 발전하여 충남·대전 혁신도시가 지정될 때까지 충남도의회에서는 충남·대전·세종시와 함께 연대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로서 충청권 여야 정치권과 특히 산자위 소속 충청출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소임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도청이 이전하고 8년이 되어 가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주민생활이 불편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

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홍성·예산 주민들이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과 함께 지난해 3월 도지사에게 충남도가 앞장서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범 도시 서명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역설했다.

충남도에서는 4월1일을 시발점으로 도내 시군 전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도민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등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한 결과 지난 10월 25일 100만인 서명초과 달성하여 10월31일 서명달성 축하 기념식과 함께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중앙부처에게 보냈다.

충남도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업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범도민 서명 운동을 펼쳐주신 도민과 도내 각 기관 사회단체, 도지사와 각 시군의 시장, 군수 등 공무원, 여야 정치

권 등 모든 분들에게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우리 충남도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담은 100만인 서명부에 의거 지난 11월28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가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 마지노선으로 2020년 2월 임시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대전시민의 여망을 담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길 간절히 바라며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날까지 충남도의회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전시, 세종시와 연대하면서 충남도와 사회단체, 국회의 충청출신 여야 정치권, 충청인 모두가 2월 임시국회가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충청권 시·도의회,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한목소리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 결의대회  
'균특법 개정안' 2월 처리 촉구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지난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유병국 의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이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고 약속했다.

유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성과

도의회, 연구모임 결과물 발령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운영위원회 결과보고를 끝으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1년 3개월여 간의 연구활동을 마쳤다.

연구모임에는 김명숙 의원(청양)을 대표로 김명선(당진2)·김기서(부여1)·김영권(아산1)·안장현(아산4)·오인환(논산1) 의원과 김혜경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등 사회적경제 현장활동가, 관계공무원, 연구원 등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 정

책 발굴을 위해 충남도의회 제11대 의회가 시작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마을·자활·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도내 관련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경제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분주히 누볐다.

2018년 발족식과 함께 가진 첫 회의에선 연구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충남 1호 사회적기업인 '즐거운밥상'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시설 등을 살폈다. 같은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박용원 국장으로 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운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시군과 단체, 기업, 학계 등 도내 사회적경제 업무 관계자들과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 첫 결과물로 지난해 9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운영방안 논의'를 주제로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충남연구원 공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전담기구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 농어민수당 법적 근거 마련

농민단체들과 간담회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9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농경위는 조례 심의 전 전 농 충남도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정 내용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청남도의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